

3) 반응

※ 기쁨으로 반응하라

...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예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rejoice)이 충만한 자리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예배는 ‘축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매우 실감나게 기록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음 내용을 세 번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해 볼까요? 확신에 가득한 목소리로 외쳐 봅시다.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내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현장입니다.

※ 회개, 헌신으로 반응하라

이사야 6장은 예배의 모형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체험한 천국 보좌의 예배 모습은 위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는 그 즉시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그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는 부름에 순종하는 이사야. 예배를 통해 이사야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이때부터 이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입니다. 둘째는 특정한 사명과 사역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를 걸친 채 허덕이며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한 번 사는 인생, 소명에 따라 헌신하는 복을 누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 결단으로 반응하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길들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기 위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 그 곳에서 우리 이웃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어쩌면 위험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위험천만한 결단’인 셈입니다. 예배의 결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나라, 미전도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을 하나님께 Alignment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 나의 생각과 가치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라이프 스타일 등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조정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며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④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주요 소식

1) 8월은 재충전의 달

8월 한달은 목회 안식일로 보냅니다. 주일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양육 사역을 휴식하며 재충전의 기간으로 보내며 올해 전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교우 동정

1) 한국 방문 임경자 권사

2) 입국 고영미 집사

■ 교역자 동정

1) 한국 방문 권태욱 담임목사 (8월 5일(월) - 8월 17일(토))

■ 8월 교회 주요 행사 안내

1) 씨리한인교회 마더와이즈 1기 6월 5일 - 8월 7일 (수요일 10:30 - 12:00pm)

2) 소리엘 “장혁재 목사” 찬양 예배 8월 18일(주일) 오전 11:30

— 도서 소개 / 8월에 읽을만한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A. W. 토저 저서 · 이용복 번역 / 규장 출판)



“성령이 내 영혼의 집을 넓히신다!”

그저 그런 내 수준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실 수 있다

토저가 말하는 부흥과 영적 성장의 원리들...

작은 집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라. 우리의 영도 성장할 수 있다!

경쟁이 극심하고 살벌한 이 시대에는 사람의 정신적 역량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화심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의 경우, 그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의 정신적 역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라는 기적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역량이 적은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영혼의 집을 넓히실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

섬기는 사람들

• 원로목사 및 파송선교사 홍성덕 (Sung D. Hong) 목사

• 담임 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 (중고등부/청년부), 하선미 전도사(유치부/유초등부)
이영미 전도사 (영아부/유아부)

• 시무 장로 김향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중

• 반 주 김민경

코람데오
Coram Deo
LIVING BEFORE THE FACE OF GOD



씨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온세대 주일 예배

※는 일어섭니다.

참회와 신앙고백 Call to Worship 다같이

경배 찬양 Praise & Worship 주 여호와와 찬양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의 하나님

대표기도 Prayer 김태환(Isaiah) 학생

환영 및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한금봉헌 Offering 정시환 / 정라엘 어린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15:18 - 23 정진환 어린이

설교 Sermon 어서 돌아오오! (O, Come Home!) 권태욱 목사

결단기도 Prayer Together" 어서 돌아 오오 (찬송가 527)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권태욱 목사

축복 및 파송 찬양 “살아계신 주(Because He Lives)” 찬양팀

오늘의 말씀 요약

● 본문: 누가복음 Luke 15:18 - 23

● **제 목:** 어서 돌아오오! (O, Come Home!)

지난 주 현금

예배 위원

주 일	8월 4일	8월 11일	8월 18일	8월 25일
대표기도	온세대에 배	이지수	우종근	최미영
안내위원		임경자 고영미 한선애 최명원		
헌금위원		고광임		
점심봉헌	김준현	오석철	김연수	김향덕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예배 11:30 am 본관 1층 유.초등부 11:30 am 본관 지하 중고등부 & 청년부 11:30 am 본관 지하
새벽 기도회	화요일 - 금요일 6:00 am 본관 1층
금요 성령집회	금요일 7:30 pm - 9:00 pm 본관 1층
제3기 제자훈련반	화요일 9:30 am - 11:00 am 목양실



씨리한인교회 합심기도

1. 매일 10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 합시다.
2. 기도의 300 용사를 세워 주옵소서.
3. **씨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